

2026년 8월 24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슈퍼 위크와 수급 안전판

이번 주 코스피는 1) 잭스홀 미팅 결과, 2) 미국 장기물 금리 향방, 3) 미국 7월 PCE 물가, 4) 한은 금통위, 5) 엔비디아 실적 이후 AI 내러티브 변화, 6) 삼성전자 주주환원 이후 수급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7,000pt 진입을 다시 시도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6,500~7,500pt).

최근 주식시장의 무게중심이 매크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국 장기물 시장금리 급등이 주가 상단을 억제하는 상황. 향후 관건은 지수상단 돌파 여부로, 8월 이후 몇 차례 도전했던 7,000pt대 진입 성공 및 안착을 위해서는 시장금리 안정 등 매크로 불확실성 완화라는 재료가 필요한 시점. 주식시장 고유 관점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사실상 차주까지도 증시 방향성의 변수가 되는 메인 이벤트, 국내 내부적으로는 주도주인 삼성전자의 본주 향방 및 반도체 포함 증시 수급 환경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 결국 이번 주는 주도주들의 대규모 주주환원이라는 하방 안전판을 확보한 상태에서, 잭스홀, PCE, 엔비디아 실적 등을 통해 장기 금리 불확실성, AI 투자 논란이라는 상단 제약요인이 완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기가 될 전망.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21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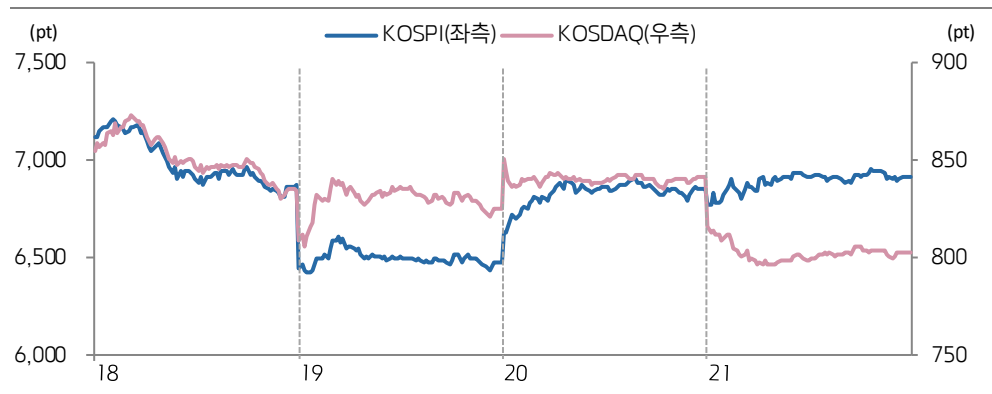
국내 증시는 미 국채금리 급등과 반도체주 차익실현으로 주 초반 급락했으나, 반도체 투톱의 대규모 주주환원 발표와 외국인 순매수 재개로 주 후반 회복하며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로 마감(KOSPI -0.9%, KOSDAQ -7.3%)

주 초반에는 외국인 순매수와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가 이어지며 반도체 대형주 강세로 출발, 코스피가 장중 7,200선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차익실현과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 재부각에 상승분을 반납함. 주 중반에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으로 AI·반도체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됐고, 외국인·기관의 동반 매도로 코스피가 하루 만에 5%대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됨. 다만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 자사주 취득·소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자심리가 빠르게 되돌려졌고, 다음 거래일 외국인 매수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급반등이 나타남. 이후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기대가 더해지며 코스피는 마지막 거래일 6,900선을 회복했으나, 장 마감 후 확정된 최대 110조원 규모의 환원안이 약 30조원 현금배당 우선 시행·잔여분 내년 1월 확정하는 구조로 제시되며 시간외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됨. 코스닥은 외국인·기관 동반 매도 속에 4%대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됨.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장기금리 방향성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시각 변화가 주간 흐름을 좌우함. 미 국채 장기물 금리 상승은 자금조달 부담이 큰 AI·반도체 업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외국인 자금 이탈을 촉발했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긴장 등 중동 리스크도 위험자산 선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대내적으로는 반도체 투톱이 연이어 내놓은 사상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 방안이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를 자극하며 외국인 자금을 대형주로 다시 유입시켰으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림. 외국인은 주간 기준 순매도를 기록했으나 주 중반의 대규모 매도가 주 후반 순매수로 상당 부분 상쇄되며 그 규모는 제한적.

업종별로 보험(+6.82%), 전기/전자(+1.46%), 유통(+1.34%), 통신(+0.05%)가 상대적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의료/정밀기기(-10.94%), 기계/장비(-10.44%), 운송장비/부품(-9.07%), 건설(-7.99%)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국인(-1조 8,503억 원)은 기계/장비(-1,016억원), 운송장비/부품(-891억원), 보험(-773억원), 운송/창고(-596억원)순으로 순매도, 기관(-2조 3,755억원)은 기계/장비(-1,508억원), 증권(-818억원), 금융(-785억원), 금속(-507억원)순으로 순매도.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2026년 8월 24일

KIWOOM WEEKLY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8월 24일	월	실적	PDD Holdings		-	-
8월 25일	화	미국	CB 소비자대지수	8월	90.2	90.8
			신규주택매매 (MoM)	7월	-1.3%	1.6%
		행사	EV 트렌드 코리아 2026		-	-
8월 26일	수	미국	경제성장률 (QoQ, 잠정치)	2분기	1.5%	1.5%
			내구재주문 (MoM, 잠정치)	7월	0.5%	0.5%
			개인소득 (MoM)	7월	0.2%	0.2%
			개인소비지출 (MoM)	7월	0.2%	0.3%
			PCE 물가지수 (YoY)	7월	3.6%	3.7%
			PCE 물가지수 (MoM)	7월	0.1%	-0.1%
			PCE 근원 물가지수 (YoY)	7월	3.3%	3.3%
			PCE 근원 물가지수 (MoM)	7월	0.2%	0.1%
		행사	게임스컴 2026		-	-
		행사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		-	-
8월 27일	목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8월	3.00%	2.75%
		회의	잭슨홀 컨퍼런스		-	-
		실적	엔비디아		-	-
		실적	클라우드스트라이크		-	-
		실적	세일즈포스		-	-
		실적	시놉시스		-	-
8월 28일	금	일본	도쿄 CPI (YoY)	8월	1.9%	2.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치)	8월	-	51.0
		발언	케빈 워시 연준의장		-	-
		실적	마벨 테크놀로지		-	-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이번 주 코스피는 1) 잭스홀 미팅 결과, 2) 미국 장기물 금리 향방, 3) 미국 7월 PCE 물가, 4) 한은 금통위, 5) 엔비디아 실적 이후 AI 내러티브 변화, 6) 삼성전자 주주환원 이후 수급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7,000pt 진입을 다시 시도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6,500~7,500pt).

21일(금) 미국 증시는 10년, 30년물 국채 금리 재상승 부담, 마이크론(-1.0%) 등 반도체주의 수급 변동성 지속에도, 미 재무부의 추가 개입 기대감 속 8월 서비스업 PMI 호조, 주중 조정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다우 +1.0%, S&P500 +0.4%, 나스닥 +0.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5%).

최근 주식시장의 무게중심이 매크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국 장기물 시장금리 급등이 주가 상단을 억제하는 상황. 물론 지난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 당시처럼, 증시 급락이 나오더라도 일방적인 투매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전반적인 증시 체력과 수급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결국, 향후 관건은 지수 상단 돌파 여부로, 8월 이후 몇 차례 도전했던 7,000pt대 진입 성공 및 안착을 위해서는 시장금리 안정 등 매크로 불확실성 완화라는 재료가 필요한 시점.

일단 미국 7월 PCE, 2분기 GDP 등 경제지표, 한국은행의 금통위(동결 컨센서스) 등 매크로 이벤트들이 대기 중에 있지만, 이 중 영향력이 가장 큰 이벤트는 주 후반에 예정된 잭스홀 미팅이 될 것으로 판단. 이번 잭스홀은 7월 PCE, 2분기 GDP, 엔비디아 실적까지 확인한 이후 열리는 만큼, 워시 의장이 최신 물가, 성장 데이터를 어떻게 통화정책에 반영하는지가 중요. 7월 FOMC 당시와 비교해 고용과 물가 환경이 달라진 상황에서 추가 긴축 필요성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핵심.

사실 이미 9월 FOMC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FedWatch 9월 동결 확률 60.1%), 9월 FOMC 정책 경로에 대한 단서보다는, 케빈 워시 발언에서 최근 10년, 30년물 금리 급등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신호가 나오는지 더 중요할 전망.

장기금리에는 재정적자에 따른 국채 발행과 AI 투자용 회사채 발행 등 구조적인 상방 요인이 내재된 만큼, 잭스홀 한 번으로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이 모두 제거되는 일은 어려울 것임. 다만 워시 의장이 최근 타이트해진 금융 여건과 고용 둔화를 감안해 추가 긴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시, 정책금리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장기금리 상방 압력은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

주식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차주까지도 증시 방향성의 변수가 되는 메인 이벤트. 주도주 대열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 특성상, 2분기 실적 및 가이드언스의 컨센서스 상회 여부가 여전히 중요할 전망. 또 블랙웰에서 루빈으로 주력 제품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데이터센터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는 지, 매출총이익률이 70% 중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같은 수익성 변화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지난 분기 GPM은 75.0%, 2분기 가이드언스는 75.0% ± 0.5%p).

더 나아가,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서는 순환금융 이슈도 새롭게 생성된 관전 포인트. 최근 엔비디아가 5,000억달러의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 구축을 발표한 이후, GPU 수요가 최종 실제 수요보다 순환 금융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실정. 따라서, 시장참여자들은 이번 실적을 통해 GPU 가동률,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AI 매출 및 CAPEX 지속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추가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2026년 8월 24일

KIWOOM WEEKLY

내부적으로는 주도주인 삼성전자의 본주 향방 및 반도체 포함 증시 수급 환경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 지난 금요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삼성전자가 대규모 주주환원을 발표했기 때문. 해당 공시에 의하면, 1) 2024~2026년 누적 FCF의 50% 주주환원(약 90~110조원), 2) 3분기 30조원 현금 배당 우선 지급, 3) 나머지 60~80조원은 현금 배당 및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병행할 예정.

일단, 이 같은 주주환원 발표에도, 장 마감 후 NXT에서 본장 상승분을 반납하다 보니, SK하이닉스 대비 약한 주주환원 강도, 재료 소멸에 따른 셀온 등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따라서, 월요일 장 개시 후 삼성전자의 수급 변동성은 높아지겠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익 성장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을 주주가치로 전환시키는 구조가 강화됐다는 점에 주안점을 둘 필요.

동시에 지난주 중반 주주환원을 발표한 SK하이닉스(40조원 자사주 매입 + 알파)와 함께 국내 증시 전반의 수급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 월요일 장 개시 이후 반도체주의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더라도, 그 지속성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주요 대외 이벤트 대응에 주력하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 결국 이번 주는 주도주들의 대규모 주주환원이라는 하방 안전판을 확보한 상태에서, 액스홀, PCE, 엔비디아 실적 등을 통해 장기 금리 불확실성, AI 투자 논란이라는 상단 제약 요인이 완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기가 될 전망.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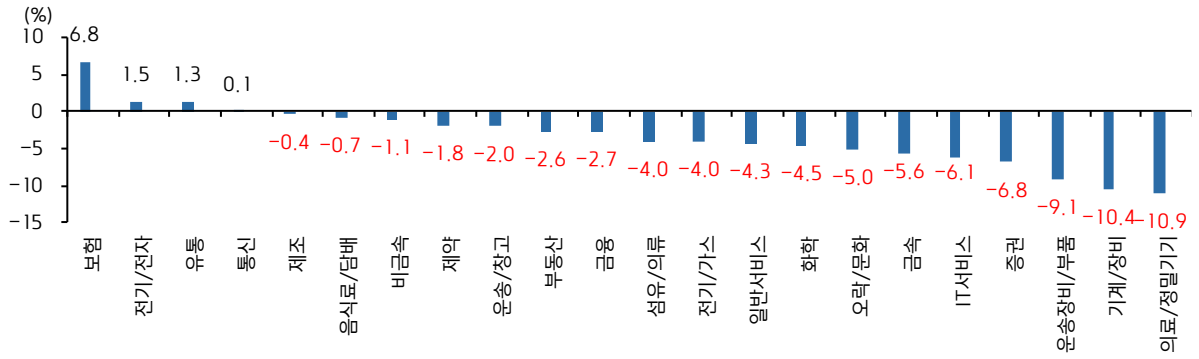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6,912.95	0.9	-0.9	2.5	64.0
대형주	7,587.26	1.2	-0.5	2.3	73.3
중형주	3,933.48	-2.4	-5.8	4.2	5.7
소형주	2,327.69	-1.8	-4.0	5.7	-7.5
코스피 200	1,096.25	1.4	-0.2	2.1	80.9
코스닥	801.94	-4.6	-7.3	6.5	-13.4
대형주	1,993.13	-5.4	-7.1	8.0	-11.5
중형주	810.66	-4.3	-8.5	5.4	-9.9
소형주	2,265.51	-2.7	-5.6	3.9	-12.0
코스닥 150	1,393.27	-5.3	-6.9	9.2	-10.0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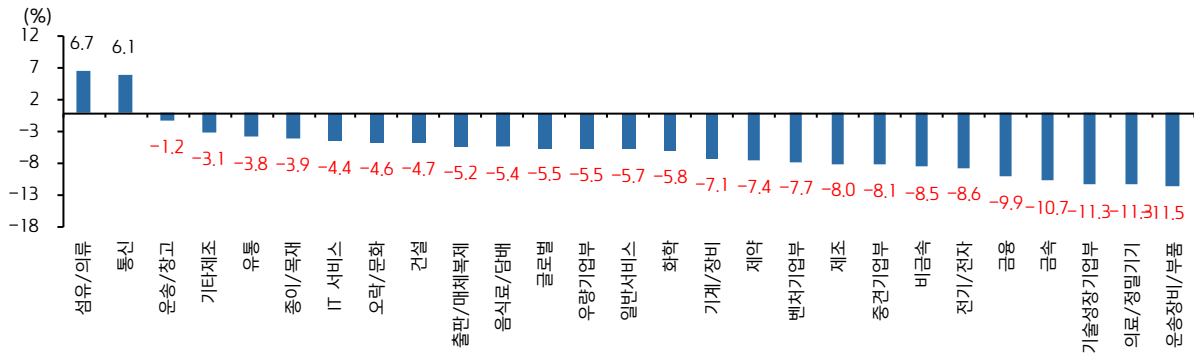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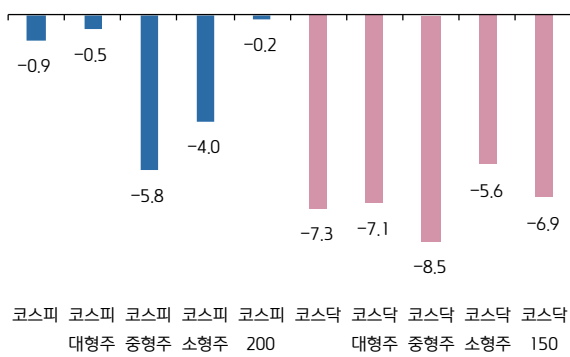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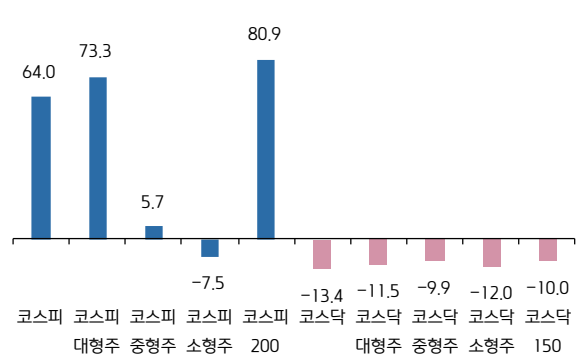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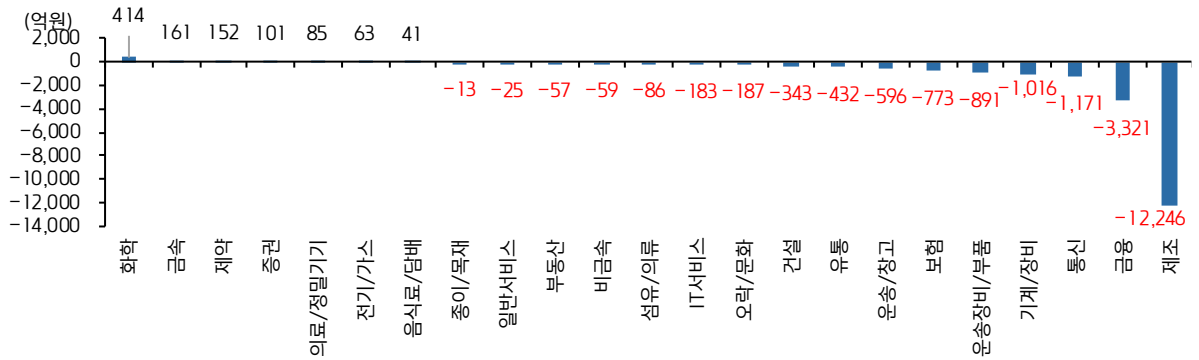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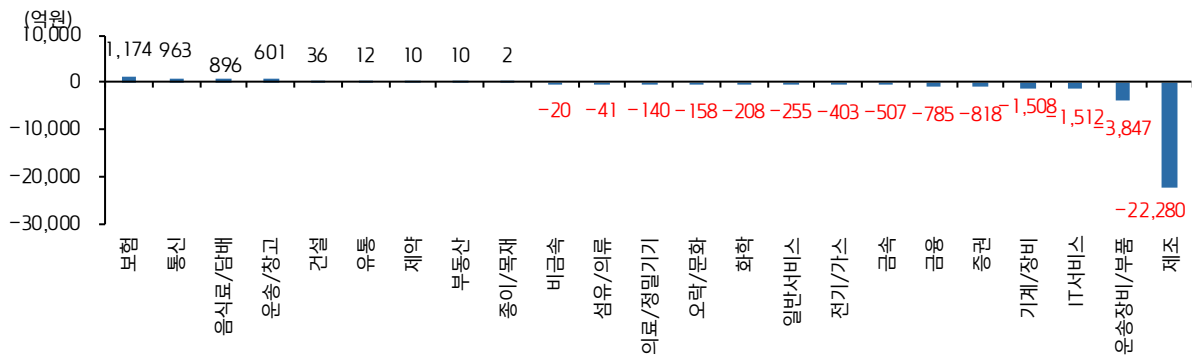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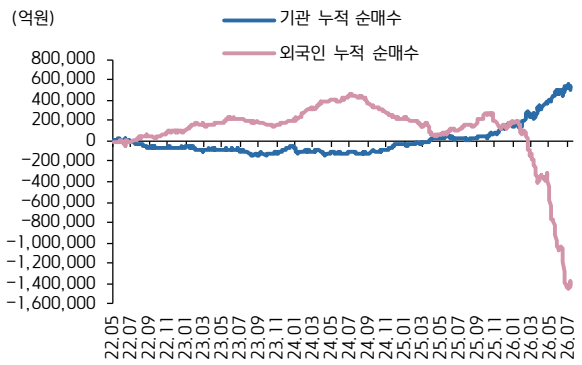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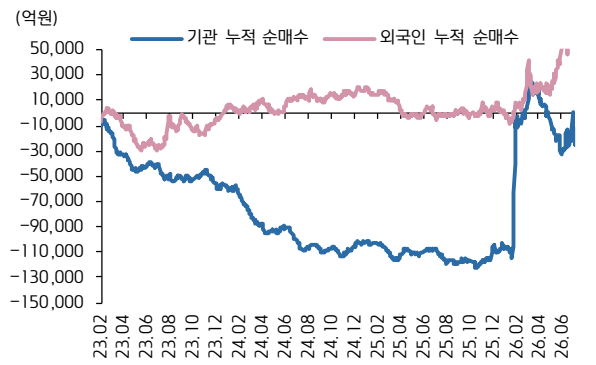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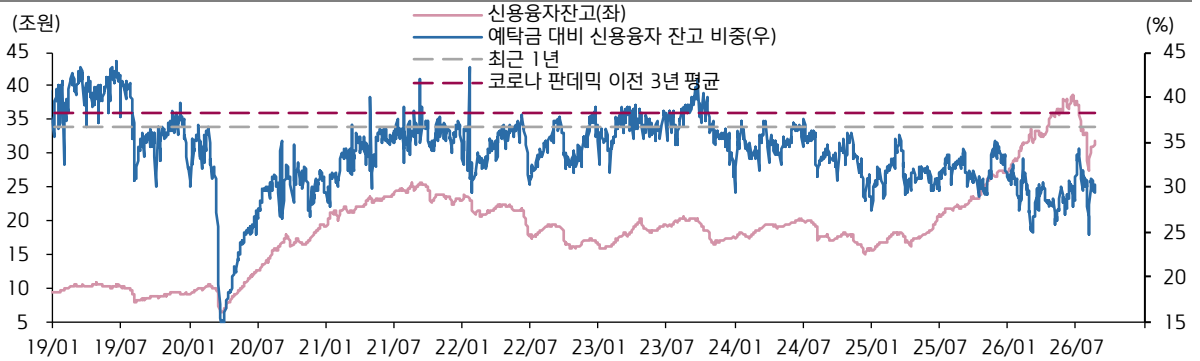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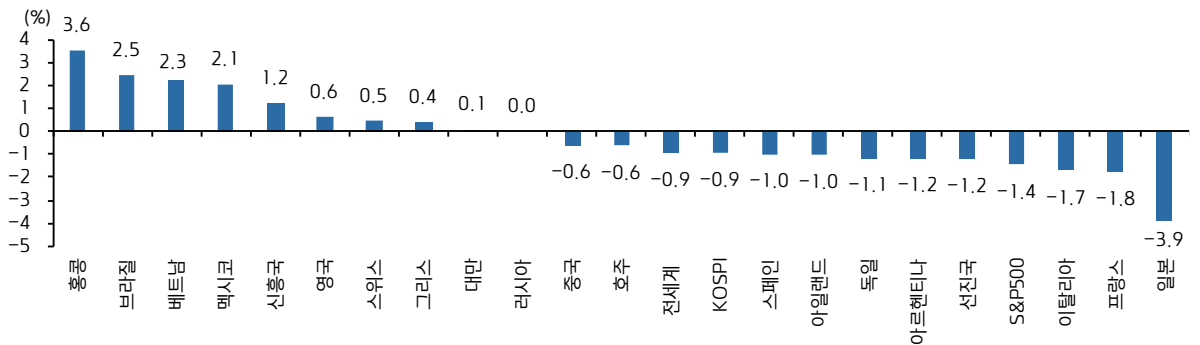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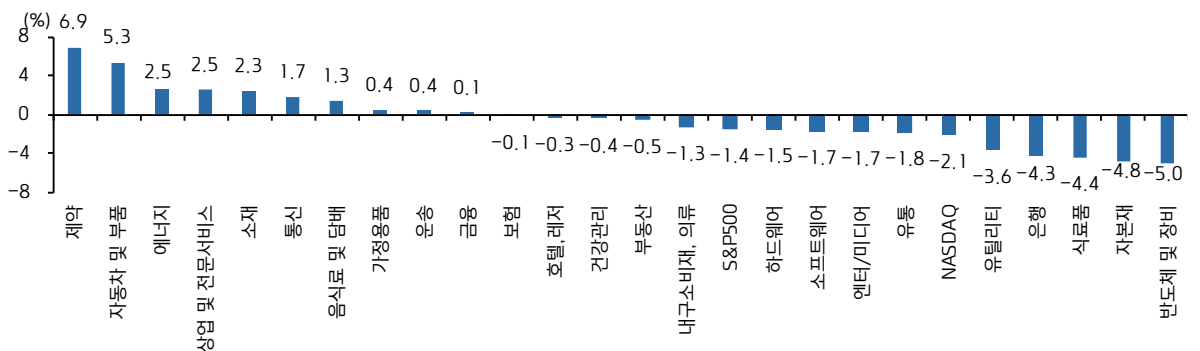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